

보도시점 2023. 12. 26.(화) 08:00 배포 2023. 12. 26.(화) 08:00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돋보기]

다양하게, 활발하게, 함께 누린 2023 문화·여가활동

- 2023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 결과 발표

- 문화예술 관람률은 58.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해 회복추세 지속, 적극적인 형태의 행사 참여율(3.7%→4.8%)과 교육률(4.6%→8.5%)도 상승
- 전반적인 여가만족도 2012년 이후 최고 수치(60.7%), 여가활동 수(15.1개→16.1개)와 여가지출비용(2만 5천 원 증가) 늘어
- 스포츠 참여, 관광 등 함께하는 여가활동 비율*과 근로자들의 여행을 위한 연차 사용 29.4%에서 31.1%로 증가

* 가족과 함께 33.5%('22) → 34.0%('23), 친구와 함께 12.4%('22) → 13.2%('23)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 이하 문광연)과 함께 문화 분야 대표 승인통계인 2023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국민의 문화·여가누림과 근로자의 휴가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구 문화향수실태조사/1988년~, 2019년 명칭 변경 및 주기 2년→1년 단축), 국민여가활동조사(2006년~, 2019년 주기 2년→1년 단축), 근로자 휴가조사(2018년~, 매년)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대상 기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전국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10,182명	'22.8.1.~'23.7.31.
국민여가활동조사	전국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10,040명	'22.8.1.~'23.7.31.
근로자휴가조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 중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이 종사하는 사업체(2,199개)와 상용근로자(5,441명)	'22.1.1.~'22.12.31.

특히,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조사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민의 문화·여가누림 회복 수준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달라진 문화·여가누림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직접 관람’ 58.6%, ‘참여’ 4.8%, ‘교육’ 8.5% 등 다양한 지표에서 코로나19 이후 문화누림 회복추세 확인

문화누림의 대표적인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이하 직접 관람률)’은 58.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2021년 이후 계속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자에 한정해 산출한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횟수는 2023년 4.3회로 2022년 대비 0.6회 증가**했다.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 ('19년) 81.8→('20년) 60.5→('21년) 33.6→('22년) 58.1→('23년) 58.6

** 직접 관람 횟수(관람자 한정, 회): ('19년) 7.7→('20년) 5.1→('21년) 4.0→('22년) 3.7→('23년) 4.3

직접 관람률 외에도 적극적인 형태의 문화누림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4.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했고, ‘문화예술교육 경험률(1년 이내 학교 교육 외)**’ 역시 8.5%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19년) 10.4→('20년) 4.2→('21년) 2.6→('22년) 3.7→('23년) 4.8

**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19년) 9.1→('20년) 6.0→('21년) 3.6→('22년) 4.6→('23년) 8.5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활동 평균 개수와 월평균 여가 지출 비용 전년 대비 늘어

코로나19 기간 감소했던 여가활동 1인당 평균 개수*는 2023년 16.1개로 전년(15.1개) 대비 1.0개 증가해 여가활동의 다양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연령에서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7%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증가해 2012년 이후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 전체 88개 여가활동 세부 유형 중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

여가지출비용은 월평균 20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만 5천 원 증가했으며, 이는 관광활동과 같이 지출 비용이 큰 여가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소비자물가 상승과 같은 외부요인이 동반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함께하는·활동적인 여가활동 비율 증대와 근로자들의 여행을 위한 연차 사용 확대 분위기 지속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의 영향으로 가족동반 여가활동 비율은 33.5%에서 34.0%로, 친구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비율은 12.4%에서 13.2%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휴식활동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감소했고, 스포츠 참여, 관광 등 활동적인 여가활동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4.9%포인트,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휴가조사는 다른 두 개 조사와 달리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실시했다. 연차휴가 소진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76.2%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중 휴식목적의 사용 비율은 30.9%에서 29.6%로 하락한 반면, 여행목적의 사용 비율은 29.4%에서 31.1%로 상승했다.

* 연차소진율 = 100*(실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부여받은 연차휴가 일수)

문체부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국민의 문화·여가활동이 양과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2024년에도 회복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누림 기반 확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문화센터 누리집(stat.mcst.go.kr)과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policydb.kc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문화·여가 분야 국가승인통계 개요
- 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상세 결과
- 3. 국민여가활동조사 상세 결과
- 4. 근로자휴가조사 상세 결과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정은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최혜지 (044-203-2512)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정책임브리핑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남녀 10,182명
- (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포함)
- (조사주기) 1년
- (조사대상기간)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
- (조사기간) 2023년 8월 21일 ~ 2023년 11월 5일
- (조사방법) 일대일 가구 방문 태블릿 대면조사

□ 국민여가활동조사

-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남녀 10,040명
- (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포함)
- (조사주기) 1년
- (조사대상기간)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
- (조사기간) 2023년 8월 21일 ~ 2022년 11월 5일
- (조사방법) 일대일 가구 방문 태블릿 대면조사

□ 근로자휴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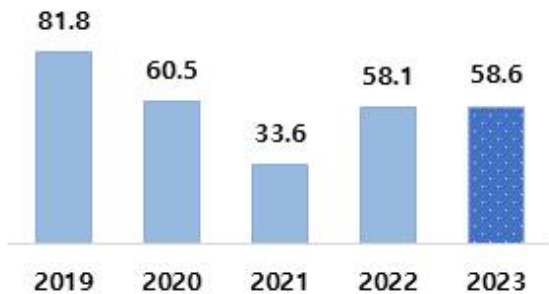
- (조사대상) 17개 시·도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용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2,199개)에서 종사하는 상용근로자(5,441명)
- (조사주기) 1년
- (조사대상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조사기간) 2023년 8월 9일 ~ 2023년 11월 9일
- (조사방법)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면접조사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 58.6%, 참여율 4.8%, 교육 경험률 8.5%로 회복추세
 연령, 소득계층간 관람률 격차 전년 대비 완화,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
 세는 청년층, 고소득층이 빨라

지난 1년 간('22. 8. 1.~'23. 7. 31.) 국민들의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58.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관람자에 한정 한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도 4.3회로 전년 대비 0.6회 증가해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및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경험률도 각각 4.8%(1.1%포인트 상승), 8.5%(3.9%포인트 상승)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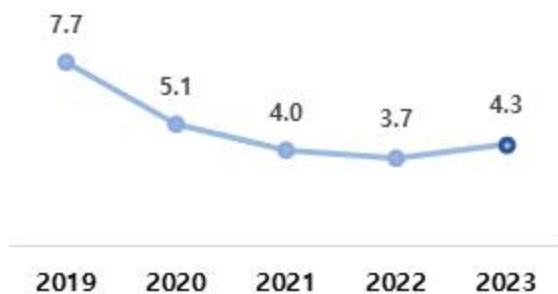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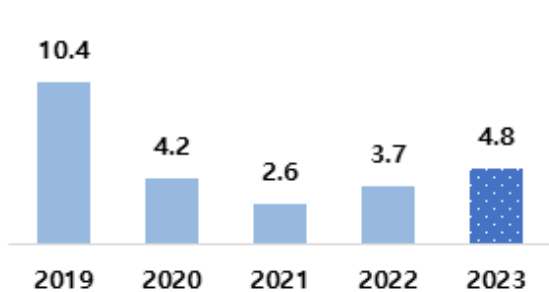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관람자 한정)>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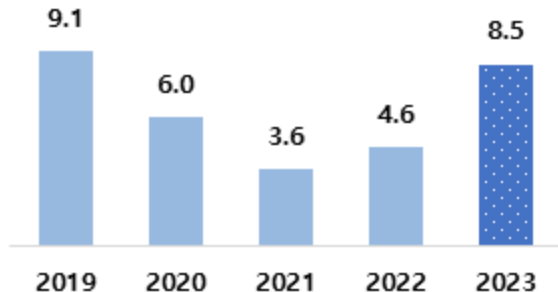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단위: %)



<1년 이내 학교 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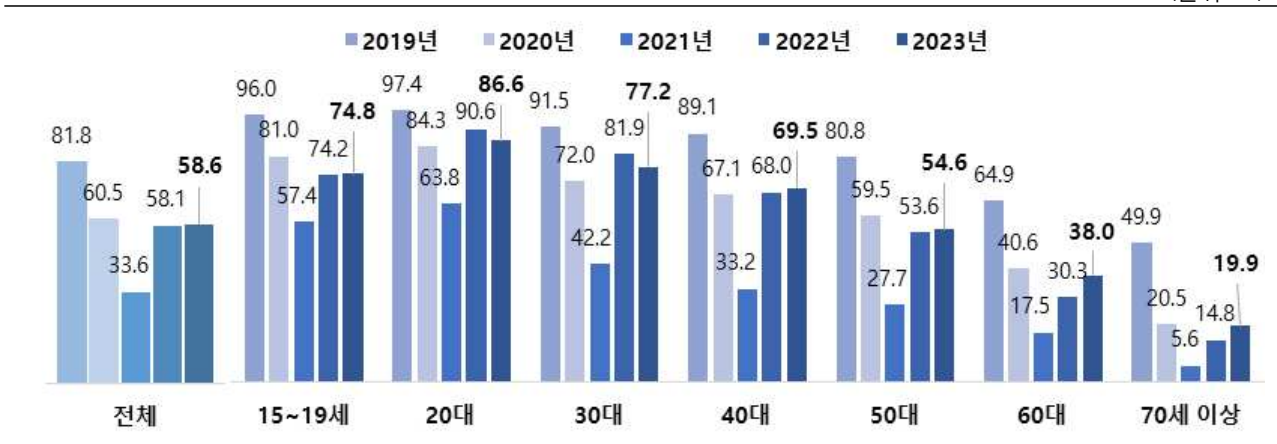


문화예술관람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관람률이 전년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60대는 7.7%포인트 상승, 70세 이상은 5.1%포인트 상승)하였으며, 20~30대 청년층의 관람률은 전년대비 감소(20대는 4%포인트 하락, 30대는 4.7%포인트 하락)하였다. 소득별로는 저소득층(100만원 미만)의 관람률과 고소득층(600만원 이상)의 관람률은 각각 5.7%포인트, 3.2%포인트 상승하여 소득간 격차는 전년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세를 살펴보면 고연령층과 저소득층의 회복세는 더딘 반면 20~30대 청년층과 고소득층의 회복세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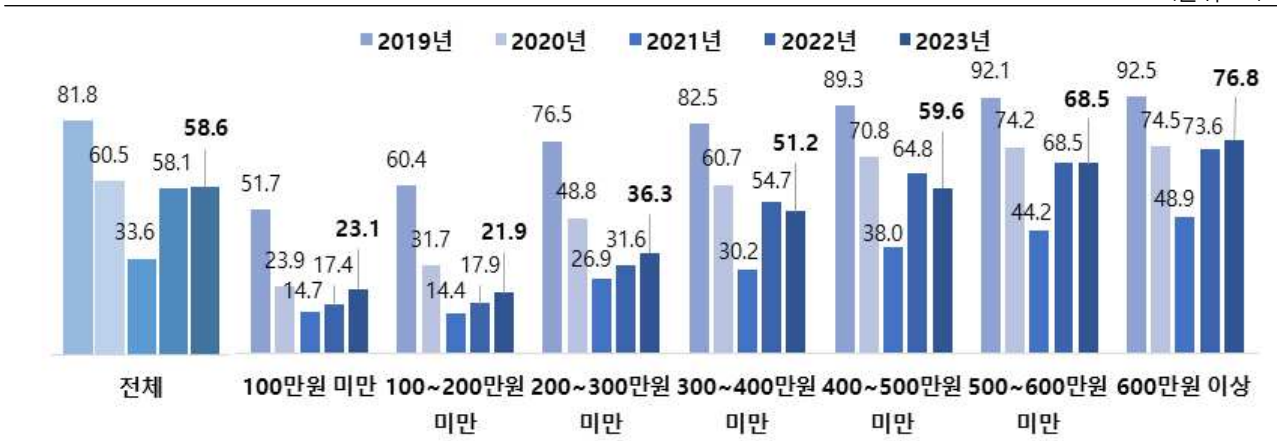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

(단위: %)



<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

(단위: %)



분야별 관람률은 영화, 대중음악·연예, 미술, 뮤지컬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중음악·연예 분야 관람률이 작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

(단위: %)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적 여가 유형 증가(스포츠, 문화예술, 관광)
여가지출비용도 증가, 전반적인 여가만족도는 2012년 이후 최고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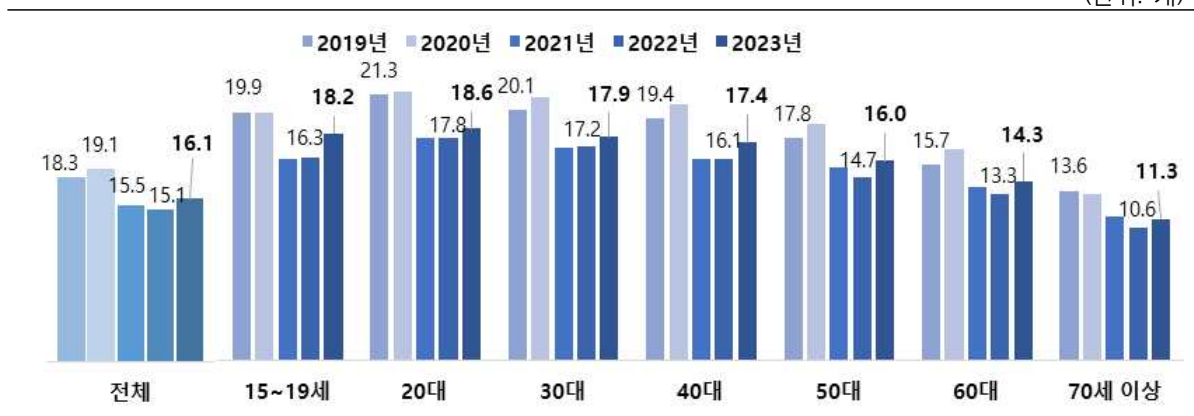
전체 88개의 세부 여가활동 중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는 2023년 16.1개로 2022년(15.1개) 대비 1.0개 상승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전년 대비 여가활동 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을 8개 중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스포츠참여(전년대비 4.9%p 상승), 문화예술관람(3.1%p 상승), 스포츠관람(2.6%p 상승), 관광(1.2%p 상승), 문화예술참여(0.9%p 상승)와 같은 활동적인 여가활동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사회 및 기타활동(전년대비 2.3%p 하락), 취미오락활동(1.6%p 하락), 휴식활동(1.4%p 하락)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참여한 세부 여가활동은 TV시청(60.8%), 산책 및 걷기(43.5%), 모바일콘텐츠·OTT시청(43.3%) 등 실내공간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만족스러운 개별 여가활동 역시 산책 및 걷기(23.3%), TV시청(20.5%), 쇼핑·외식(17.9%), 모바일콘텐츠·OTT시청(17.4%) 순으로 나타났다.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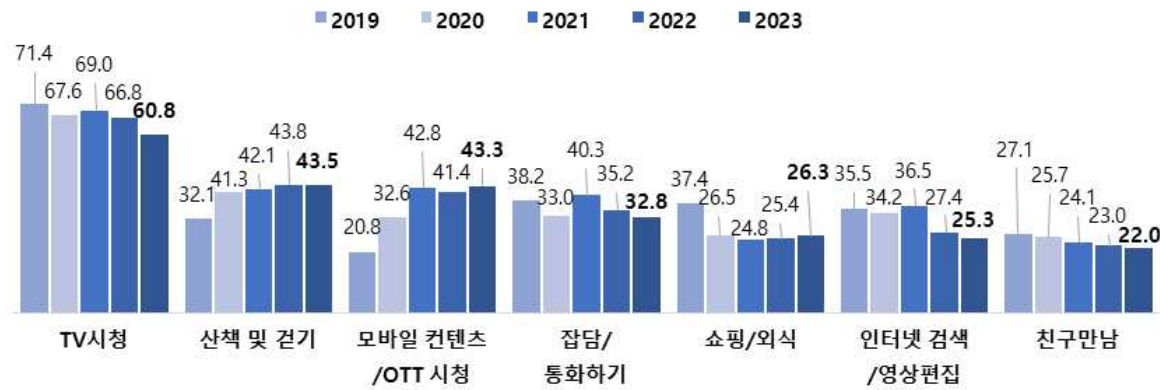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1~5순위 복수응답)(중분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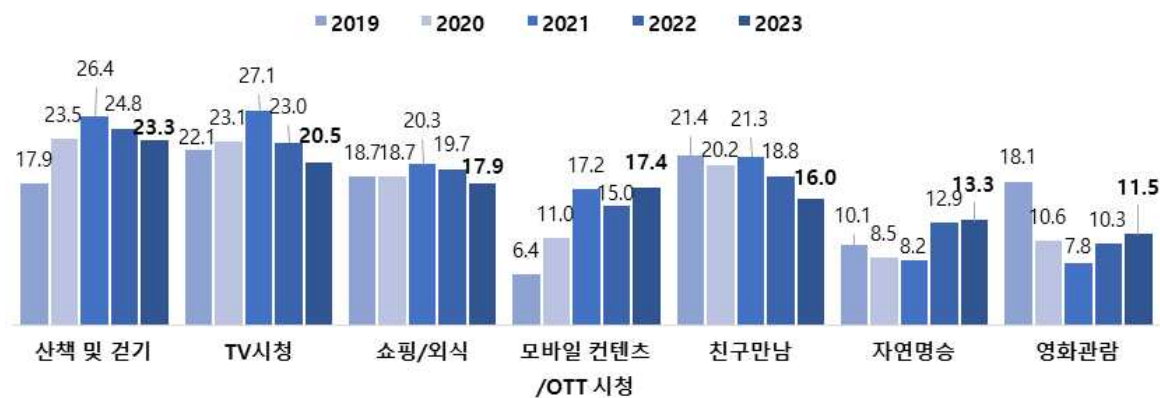
<가장 많이 참여한 세부 여가활동(1~5순위 복수응답)>

(단위: %)



<가장 만족스러운 세부 여가활동(1~3순위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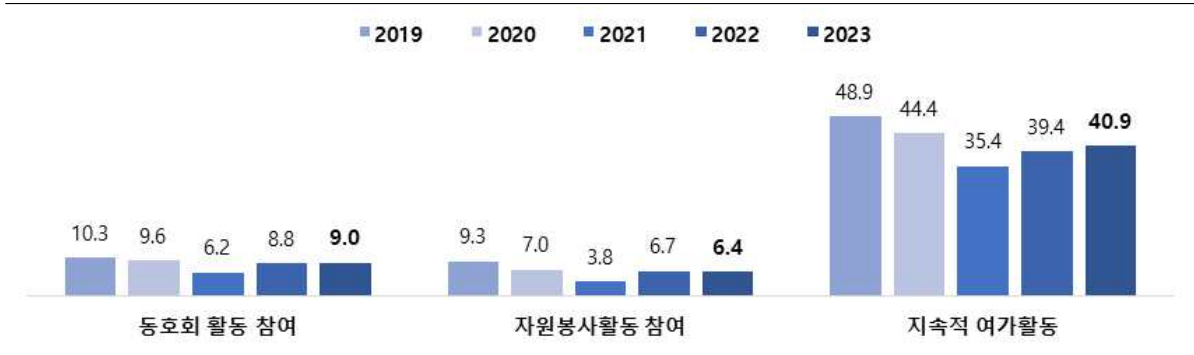
(단위: %)



자원봉사 활동 참여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동호회와 지속적 여가활동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동반자는 혼자서(50.5%), 가족과 함께(34.0%), 친구·연인과 함께(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혼자 하는 여가활동의 비율은 감소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비율이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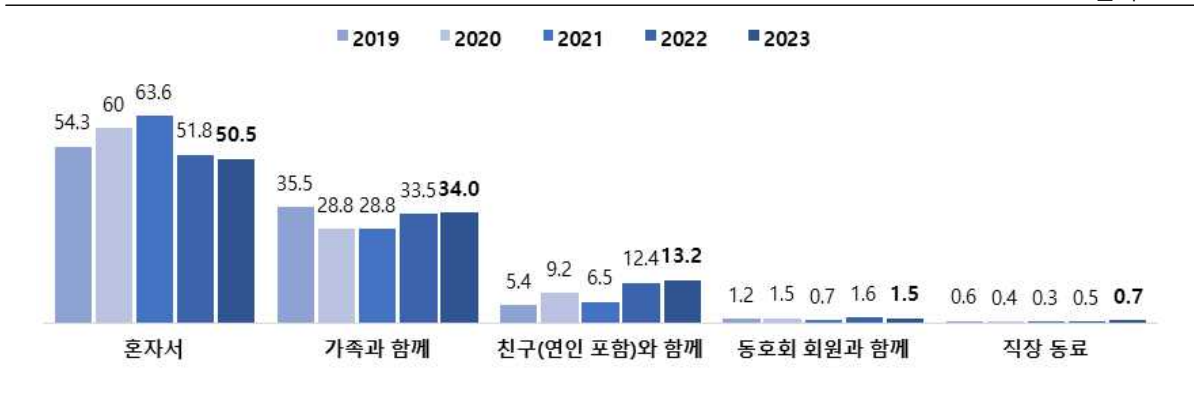
<사회성 여가활동 및 지속적 여가활동 참여율>

(단위: %)



<여가활동 동반자(1순위)>

(단위: %)



국민의 월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6시간, 휴일 5.5시간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월평균 여가비용은 20만 1천원으로 전년도 17만 6천원 대비 2만 5천원 증가하였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가비용 역시 27만 1천원으로 2022년(23만 9천원) 대비 3만 2천원 증가하였다.

<월평균 여가시간>

(단위: 시간)



<월평균 여가비용>

(단위: 천원)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2023년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매우만족+ 만족 + 약간만족)이 60.7% 비율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 만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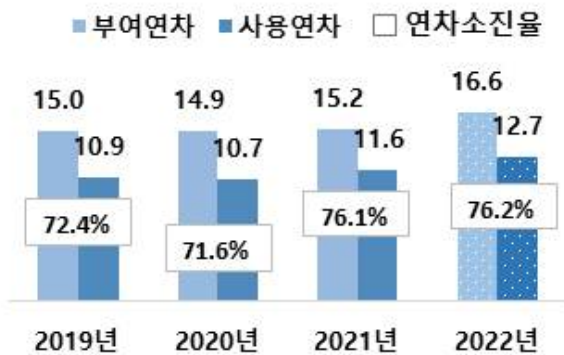
*주: 2006~2010년까지는 5점 척도(만족 = 매우만족 + 만족), 2012년 이후는 7점 척도(만족 = 매우만족 + 만족 + 약간 만족)로 기준이 다름

‘22년 부여한 연차일수는 16.6일로 전년 대비 1.4일 증가, 연차소진율 전년과 유사 ‘여행’, ‘집안일’, ‘건강관리’ 목적 연차 사용 증가, ‘휴식’, ‘여행 외 여가활동’ 감소

근로기준법 대상인(종사자 규모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들에게 부여된 2022년 평균 연차일수는 16.6일로, 2021년(15.2일)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연차소진율 또한 76.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5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한 6.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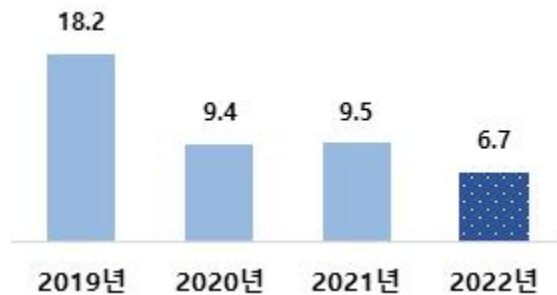
<근로자 연차휴가 변화>

(단위: 일, %)



<5일 이상 장기휴가 사용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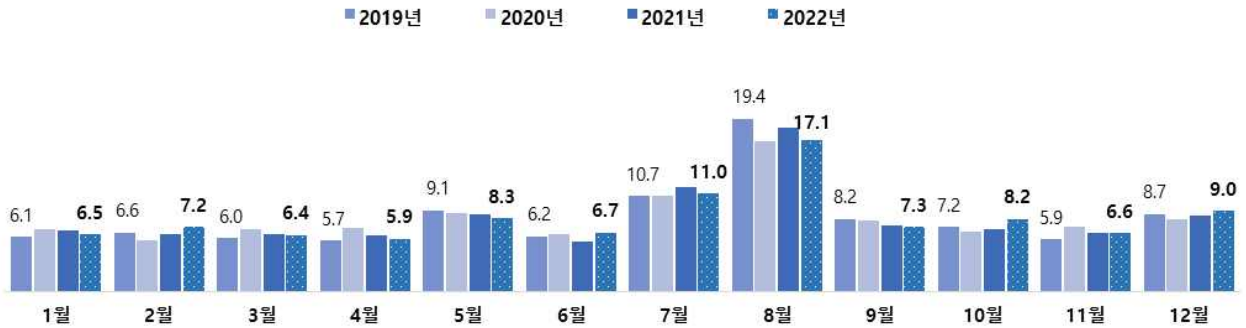
(단위: %)



월별 휴가 사용은 2021년과 마찬가지로 여름(7~8월) 휴가 사용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다른 계절(2월,10월,12월)의 휴가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하계휴가 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월별 연차휴가 사용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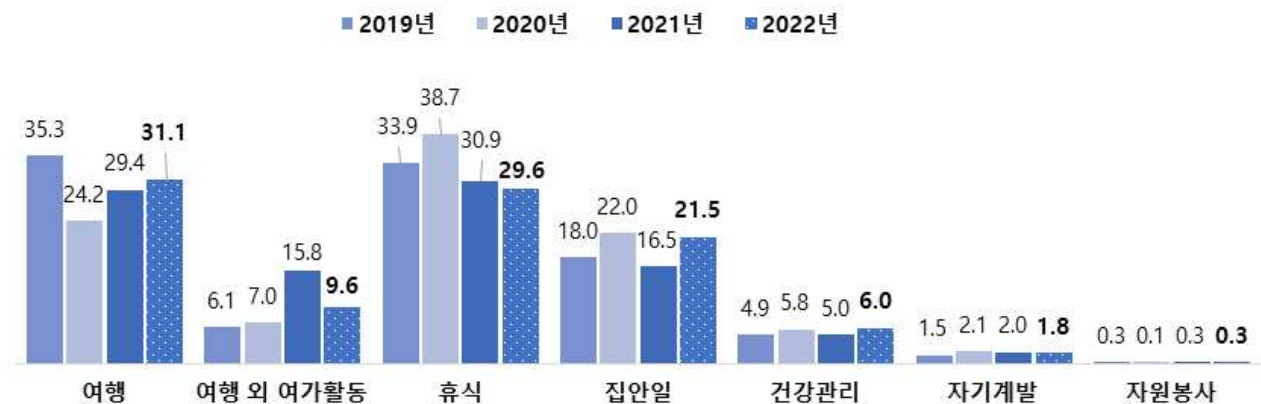


*주: 주요 수치는 2019년, 2022년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음

연차휴가 사용 목적을 살펴보면 ‘여행’을 위해 연차를 사용한 비율은 31.1%로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휴식’을 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비율은 29.6%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목적별 연차휴가 사용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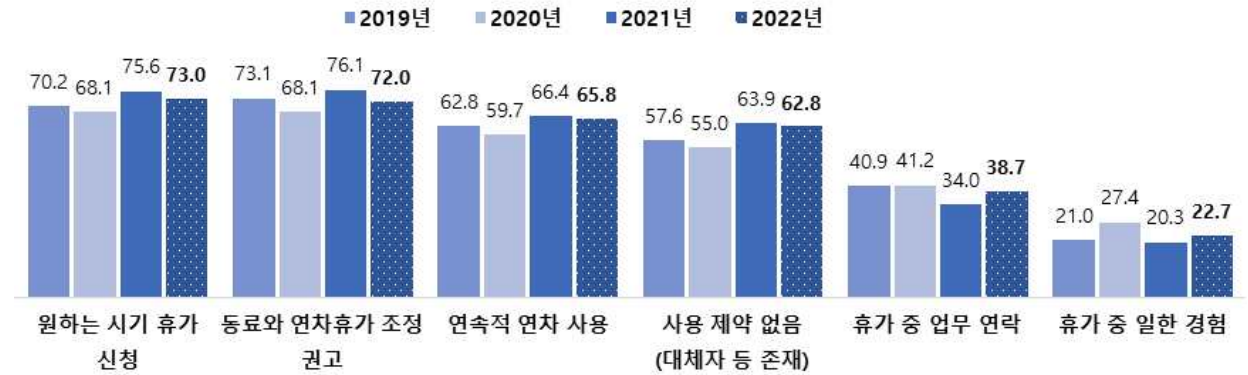
*주: 기타 제외

휴가 사용 환경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100점 만점 기준 73.0점으로 전년 대비(75.6점)보다 2.6점 감소했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38.7점)은 전년 대비 4.7점, ‘휴가 중 일한 경험’(22.7점)도 전년 대비 2.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연차사용 전반적 만족도’는 전년 대비 0.8점 증가했고 ‘연차휴가 활동’과 ‘지출비용’에 대한 만족도도 각각 1.7점씩 상승했다.

<휴가 사용 환경>

(단위: 점/100점 만점 기준)



<연차휴가 관련 만족도>

(단위: 점/100점 만점 기준)

